

## 2004년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 백찬 교육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기는 뜨거워



2004년 전국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이 4일 1기 교육생입소를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1기 교육은 총 86명이 입소한 가운데 간단한 입소식을 가졌으며 지재식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재식위원장은 현장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명퇴설 및 대란설 등은 터무니 없는 억측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영업국 우대방안 ▲상품판매담당요원 문제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휴일근무문제 ▲도급문제 ▲전환직 등 조합간부와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끝으로 지재식위원장은 지난 5월 진행됐던 노사대토론회의 지속선상에서 올해말 지방본부별 노사대토론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조합간부들은 지난 5월 실시됐던 노사대토론회 영상을 시청하면서 당시 뜨거웠던 토론열기를 느끼고 이후 지방본부별 토론회를 미리 가능했다. 한편, 기획관리국장은 세계경제정세와 통신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기술발전으로 인한 통신시장과 고용변화 등을 전망했으며 하반기 민주노총의 4대

핵심 사업을 간부들에게 설명했다. 저녁식사 후에는 차원규 정책1국장으로부터 노동3권과 단체협약 해설을 들으면서 조합간부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조합과 조합원의 미래가 없음을 일깨우기도 했다.

연이어 2004년 임단협체결 과정을 비디오로 시청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이 얼마나 치열하게 체결되는지 확인했다. 선전선동교육에서는 백관기 교육국장이 대중앞에서의 효과적인 선전선동 기법과 명확한 의사전달방법을 열변했고 조합간부들은 목청을 높여 조별구호발표로 대중앞에서의 선전선동 실천감각을 익혔다. 끝으로 조별 깃발제작과 분임토의 진행으로 첫날 교육일정을 마쳤다.

교육 이틀째, 새벽6시 어둠을 헤치고 전야 밤 조별로 제작한 깃발을 높이 들고 계룡산 정기를 가슴 활짝 펴 가득 받고 힘찬 구보로 시작했다. 조별 깃발제작과 분임토의 결과에 대한 발표에 이어 김화식 정책기획실장의 산재업무 처리방법 및 대응에 대한 강의를 통해 현업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불의의 산재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강의는 진행되었다.

이어서 이번 역량강화 교육의 마지막 강의에서 한호섭 복지국장은 KT 임금체계와 복지수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비급여성 복리후생

비를 지원함에 있어 간과하기 쉬운 현장 실례를 많이 소개하였고, 일상활동에서 조합간부들은 조합원 권익보호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분발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소식을 마치고 다시 현장 조합원들에게 되돌아가는 조합간부들의 발걸음이 더욱 힘찼다.

현재 1기 교육생에 이어 2기와 3기 교육에 총250여명의 조합간부들이 참석해 늦게까지 힘들게 진행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없이 교육에 임했다.

한편, 2004년 전국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은 오는 14일까지 6기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 추계 체육행사, 농촌일손돕기로 전환 시행

WTO·FTA·쌀개방 등으로 시름하는 농민에게 희망을..

올해 추계체육행사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농업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이웃을 돕기위해 농촌일손돕기로 전환 시행하기로 노사간 협의했습니다.

현재 농촌은 WTO, FTA(자유무역협정),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쌀개방 등으로 인해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원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일손을 거들고 농민들과 고통을 함께한다면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93년 600만에 이르던 농민이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2004년 30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과 정부는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은 포기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식량을 외국에 맡기는 것은 우리국방을 외국의 군대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외국의 군대는 자신의 국익에 위배될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이며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존폐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스웨덴은 식량자급률 129%, 일본은 식

량자급률 목표치 45%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식량자급률이 26.9%에 그치고 있으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4년 이후에는 더 많은 농산물을 개방해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민의 현실을 조합원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주시고 기관별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농촌일손돕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일소식지 400호 발행기념 이벤트

일일소식지 '당당한 노동조합 400호 발행'을 기념한 이벤트 행사가 2004.10.7 ~ 10.22일까지 실시됩니다.

#### EVENT 1.

○우리 가족을 위한 주5일제 이벤트 행사에 참가하고 주말경비 지급받자!

1)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주말여행, 문화체험, 주말농장 등 우리 가족만의 알찬 주말계획공모(자유형식)

2) 선정기준 및 경품 : 새로운 주말가족문화의 모범 가정상 제시

경 품 ☞ 최우수 1명 : 여행경비 20만원[현금]

우수 1명 : 여행경비 10만원[현금]

장려 2명 : 여행경비 5만원[현금]

#### EVENT 2.

○디카사진 공모전에 와! MP3가 경품으로!

1) 3개 주제중 하나를 선정후 사진응모

▲주제 하나 : 주5일제 시행후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가족사진

▲주제 둘 : 조합원들간의 화합과 단결의 건전모임 등 단체활동사진

▲주제 셋 :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 조합원들의 봉사활동사진

2) 선정기준 및 경품 : 화목과 화합등 공동체 표현에 중점심사

경 품 ☞ 최우수 1명 : 최신형 MP3 (512M)  
[330,000만원 상당]

우 수 1명 : 최신형 MP3 (256M)  
[270,000만원 상당]

### EVENT 3.

○우리 지부 소식지는 우리가 만든다!

1) 지부별 다양한 조합소식을 A4 1~3장 내외의 소식지로 제작 (자유형식)

2) 선정기준 및 경품 :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지부 소식의 내용성, 참신성 등

경 품 ☞ 최우수 1개 지부 : 상품권 20만원

우 수 1개 지부 : 상품권 10만원

장 려 4개 지부 : 상품권 5만원

지재식  
위원장

UNI회의 참석차  
10일 출국

지재식위원장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UNI아시아 태평양 통신분과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한다.

이번 회의에서 지재식위원장은 2003년 진행했던 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추천활동을 소개하고 사상최초

로 집중투표제 청구까지 전개하는 등 투쟁과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사회에서도 거스를 수 없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사외이사 추천활동으로 쟁취한 우리사주직선제의 의의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일상적인 경영참여의 발판을 만들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은 2003년 조합원의 주권위임을 받아 총 의결 주식의 3.5%를 확보해 주주제안요건을 갖추고 중앙대 이병훈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하고 집중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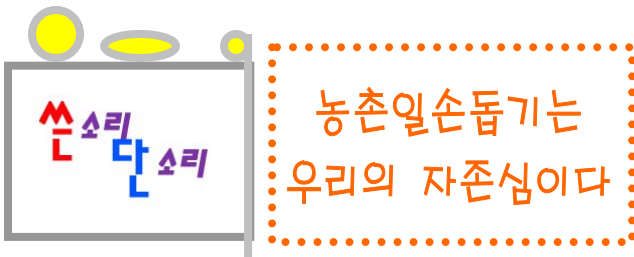
### 양대노총,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전국노동자대회 “비정규차별철폐·직권중재철폐”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비정규노동법개악저지! 권리보장입법쟁취! 양대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10일 오후 2시 150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로에서 개최하고 “정부가 비정규노동법개악을 강행할 경우 양대노총 공동 총파업 등 총력투쟁으로 저지할 것”임을 결의했다. KT노동조합을 비롯한 IT연맹도 조합간부가 참석해 비정규 정부입법안 저지투쟁 및 직권중재 철폐투쟁을 강력하게 펼쳤다.

이날 집회에서 양대노총은 “비정규직문제는 사업장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사회적 문제이다”며 “정부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파견업종이 전업종으로 확대되어 파견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정규직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등 우리사회 고용구조 전반을 심각하게 뒤흔들어 놓을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또한 양대노총 비정규 노동자들은 ▲ 정부개약안 철회 ▲ 파견법 개약중단 ▲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3권보장 ▲ 동일노동 동일임금보장 ▲ 한일 FTA 협상중단 등을 요구했다. 배효주 연맹수석부위원장은 “정부 입법안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체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다”며 “하반기 투쟁은 1500만 노동자의 단결투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이번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IT 노동자도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향후 민주노총은 ▲ 파견법 개약 등 비정규 노동법 개약 저지 ▲ 5대 입법 쟁취투쟁(비정규 차별철폐, 손배가압류, 직권중재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한일자유무역협정(FTA), 한미투자협정(BIT) 체결 저지 ▲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출처 : 노동조합게시판 2004.10.05]

얼마전에 사장과 위원장이 추계체육행사를 농촌 일손돕기 운동으로 전환 시행하자는 합의를 이끌어 전사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요즘 농촌에서는 정부의 쌀시장 개방정책에 맞서 대규모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조금이나마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알아주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일부 불만여론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좋은 취지라 생각하며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쌀은 우리의 식량(주식)이다. 우리의 쌀을 지키겠다는 농민들의 애뜻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으면 한다

무엇이든 좋다.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 체육행사

[출처 : 노동조합게시판 2004.10.05]

체육행사-농촌일손돕기로 전환...왜 이리 허전할까?.

1. 민영화 이후 업무가 과중해 지다보니 체육 행사하기가 쉽지않은지 오래다. 그 이유로는..

-.업무 형편상 못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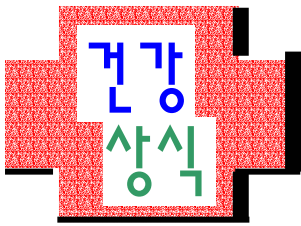
-.CVA등 지표관리에 영향고려로 부서전체가 빠지는 경우(저녁시간 활용 개략행사로 대체)

2. 그렇다고 해도 본인은 동료들에게 체육 행사에 꼭 참석할것을 권해왔다. 그 이유는 바쁠수록 나를 돌아볼수 있는 시간으로. 동료들 끼리 자연 속에서 대화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제도)이고 좋은 제도도 지킬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작은 철학 때문이었다.

3. 올해는 이 행사가 농촌일손 돕기행사로 전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이유로는

-.농촌의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KT노동조합에서 걱정해서 될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WTO.FTA등 복잡한 상관관계등)

-.시행일 10.15일 :왜 꼭 이날일까?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마지막 날. 좀더 사려깊은 정책 결정이 아쉽다.



## 건강한 음주문화

[출처 : <http://www.healthkorea.net>]

술은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영향이 이로운 경우도 있고 해로운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해로운 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술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음주에 대한 잘못된 생각

#### 술은 음식이나 음료일 뿐이다.

술은 식품의 하나이나 다른 음식과는 달리 인간의 뇌(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중독성이 있다. 따라서 중독될 경우 마약과 같이 끊기가 쉽지 않고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한다.

####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사람에서 같다.

술 대사 능력, 신체 상태 등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술에 의한 영향은 모든 사람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사람이라도 술의 종류, 분위기, 신체 상태에 따라 매번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술을 강제로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건강하다는 의미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신체에서 분해되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하고 다시 산으로 변해 몸밖으로 배설된다.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부족할 경우 아세트알데히드가 쌓여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진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숙취를 일으키고 신체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술로 인해 건강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해장술과 사우나는 숙취에 좋다.

한 번 술을 마셨다면 적어도 2~3일 정도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간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된다. 따라서 술로 인해 간세포가 손상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면 간세포 손상이 더욱 커진다.

술을 마신 뒤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거나 사우나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우나를 하면 남아있는 알코올이 땀으로 배설되면서 수분이 함께 빠져 나와 심한 탈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

#### 술잔을 돌려가며 먹는 것이 친목에 좋다

술잔을 돌리는 것은 침을 통해 간염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고 내가 간염에 걸릴 수도 있다. 우리 나라 성인의 경우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많으므로 이는 특히 위험하다. 또한 술잔을 돌리는 것은 과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의 잔으로 자신의 주량에 따라 마시는 음주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 ▶적절하게 술을 마시는 요령

적절하게 술을 마시는, 또는 마시게 하는 요령을 알아두는 것은 음주하는 본인이나 그의 가족,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음주로 인하여 갖게 될 개인적,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알코올 함량이 낮은 술을 택하여 마신다.

◆술을 바꾸어 마실 경우, 처음에 마신 술보다 알코올 함량이 낮은 술을 마신다.

◆안주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여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술을 마신다. (알코올의 장내 흡수율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 6주간KTU

◆술을 마시면서 목이 마르면 얼음이 들어 있는 찬물을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술을 본격적으로 마시기 전에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는 음료수를 미리 마셔 둔다

◆받은 술잔은 다 비운 다음에 잔을 다시 채우게 한다.

◆술잔은 가득 채우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서 소금기가 많은 짠 스낵을 같이 먹지 않는다.

◆술 마시는 시간을 가능한 한 오래 끈다.

◆하루에 마시는 술의 양은 표준 음주량의 2배가 넘지 않게 하며, 최대 음주 수준이 남◆자는 표준량의 6배, 여자는 4배를 넘지 않게 한다.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을 때는 "더 이상 마실 수 없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말한다.

◆술병이나 용기에 붙어 있는 알코올 함량 등의 표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자기가 마신 술에 들어 있는 알코올의 부피와 양을 어렵잡아 보며 표준량을 지키도록 한다.

◆매일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1주일에 2회 정도만 술자리에 참석한다.

◆자신의 음주 계획을 세워놓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 일주일에 음주를 몇 번이나 할 것인가?
- 음주하기로 한 날에는 얼마나 마실 것인가?
- 한 번 음주하는데 술값은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
- 일주일에 섭취하는 알코올의 총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음주일지"를 만들어 술 마신 날짜 별로 함께 한 사람들, 먹었던 술의 종류, 종류별 마신 잔의 수, 그리고 지출한 술값, 알코올 섭취량 등을 기재하여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계획과 견주어 본다.

◆조금이라도 음주를 한 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음주를 한 후에는 기계류를 만지거나 운전하지 않는다.

주말에 떠나는

문 화체엄

천고마비를 따라  
오대산 나들이

[출처 : <http://www.darotv.com>]

깊어 가는 녹음 사이로 슬그머니 텅텅한 향기가 스며들고 있는 계절이다. 진한 햇살을 맞으며 무심히 걷고 있노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느껴봤을 '떠남'에 대한 강렬한 충동.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시작된 짜릿한 일탈은 도시를 벗어나는 일부러 시작된다. 맑은 시내가 흐르는 계곡도 좋고 씩사름한 바다 내음 가득한 해변도 좋지만 봄의 정취가 넘쳐나는 산속의 들꽃들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공기 좋은 강원도 산길을 따라 오대산을 향해 달리다 보면 유명한 고찰인 월정사를 조금 못 미쳐 한국자생식물원이 위치하고 있다. 그다지 화려할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식물원이지만 화원을 가득 메운 꽃들이 있어 마음까지 향기로워지는 환영인사를 받게 된다. 한눈에 보아도 넉넉한 주차장은 자가 운전자들의 근심거리 하나를 가볍게 덜어준다. 매표소를 지나 관리사무소 옆에는 분경분화관, 조경소재관, 재배온실 판매장이 있는데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은 온실 속에 꽃과 나무들이 이채롭다. 온실 옆으로는 시청각 자료실이 있어 다양한 한국자생식물에 대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데 앵초, 벌깨덩굴, 뽕꼭채, 매발톱꽃, 노루오줌, 처녀치마 등 이름만 들어도 정겨워지는 한국 토종 자생식물들이다.

우리꽃들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연들을 하

나씩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동자꽃에 얽힌 이야기다. 먼 옛날, 깊은 산속 암자에 살던 스님이 부모를 잃고 길을 헤메는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겨 데려와 함께 살았다. 겨울이 다가오자 스님은 겨우살이 준비를 위해 하산을 했다가 갑자기 내린 폭설로 발이 묶여 암자로 돌아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암자에 남은 아이는 애타게 스님이 오실 길을 바라보며 기다리다 그만 마당에 앉은 채 얼어죽었다. 눈이 녹아 돌아온 스님은 어린아이를 곱게 묻어주었는데 여름이 되자 아이의 무덤가에 아이의 얼굴같이 발갈게 예쁜 꽃이 피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이 꽃을 동자꽃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딸네 집에 끝내 달지 못하고 죽은 할머니의 무덤가에 피었다는 할미꽃, 먼저 죽은 지아비의 마음을 담았다는 지아비꽃대. 우리꽃들에는 하나같이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있다.

오밀조밀하게 정돈되어 있는 정원에는 갖가지 식물들이 다투어 피어 있고 친절하게도 꽃들마다에는 이름표가 있어서 콘크리트 속에서 살아가는 요즘의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자연학습장 역할을 해준다. 또 약 1.2킬로미터의 신갈나무 등산로가 있는데 특히 4~5월에는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자생식물원을 나와 장평IC를 지나면 메밀의 고장 봉평으로 이어진다. 가산 이효석 선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은 한국사람이라면 거의 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소설이지만 정작 봉평이라는 고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까닭에 평창군에서는 봉평을 효석문화마을로 지정하고 매년 효석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생가터에는 이효석선생 이후 현재 홍종률씨가 4대째 살고 있다. 집은 많이 개조되었는데 효석문화재 위원회에서는 홍종률씨의 동의하에 조만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할 계획을 갖고있다. 가산 이효석 선생의 생가터를 돌아보고 나면 어느덧 출출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메밀 관련 음식점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봉평에는 메밀의 고장답게 곳곳에 있는 식당들의 메뉴가 모두 메밀 일색인데 메밀국수, 메밀전병, 메밀부침 등 메뉴판을 보기만 해도 군침이 주루루 흘러 내린다. 특히 옛스럽게 멋을 낸 식당에서 먹는 메밀국수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다. 또 하나 추천하고픈 음식은 메밀 전병으로 맛이 독특한데 김치로 속을 넣은 만두맛과 비슷하다. 또 메밀은 탄수화물 외에 아무 영양소도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효석문화마을을 나오며 우후죽순처럼 주변에서 공사중인 현대식 카페들을 보며 나중에 효석문화마을이 메밀카페마을로 탈바꿈해 있거나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효석문화마을을 나와 왼쪽으로 흥정계곡을 끼고 한참을 올라가면 허브나라가 있다. 길은 조금 협소한 편으로 차량 2대가 서로 간신히 지날 수 있다. 허브나라는 계곡 바로 옆에 자리해 있는데 안쪽 정원에는 갖가지 허브들이 가꾸어져 있다. 로즈마리, 라벤더, 금잔화 등의 허브들이 가족들과 연인들의 발길을 붙잡고 여기저기에 예쁘게 꾸며 놓은 구조물들은 추억을 남기려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사진의 배경이 되어준다. 정원 한켠에는 허브나라의 주인이 운영하는 자작나무집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허브를 이용한 음식과 차, 그리고 갖가지 허브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허브 매니아들을 위해 숙소도 제공하고 있는데 1박에 약 8만원 정도이고 반드시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허브나라를 끼고 도는 흥정계곡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즐기는 것도 좋다. 한참을 걷다보면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나 나을법한 외나무다리가 있는데 깨끗한 개울물과 참 근사하게 어울린다. 하지만 계곡 여기저기에서 야유회를 하는 사람들의 무분별함 때문에 얼마동안이나 바닥이 흰히 들여다 보이는 개울물이 흐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